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구영산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 중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실천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2012년 7월 제2언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래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박재용(2012)은 한국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구분의 무의미함, 교육 내용의 위계성 결여, 성취기준의 정의적, 인성적 요소 미반영, 어휘 선정 기준의 타당성 결핍 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양영희(2013)는 한국어 교육 대상 선정의 타당성,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효성,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구분의 정당성 등을 문제로 제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교육과정과 독립된 한국어 교육과정 체제 마련과 실생활 중심의 교수·학습 내용 구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란(2014)은 위 두 연구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조직 및 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 학습자 성격의 명료화, ‘상호 문화 이해’와 관련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보완, 교

육 내용 조직의 정련, 타 교과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고찰 결과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현재 보완되어야 할 여러 논의거리를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중앙집권적인 성격의 한국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그만큼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개선안의 모색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과정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별 성취 기준과 그에 대한 총괄 수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정 전반 및 세부 성취 기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델파이 조사 형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주로 다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선안을 전문가들로부터 수집, 종합하였다. 그 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수집된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측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도출,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선안에 대한 위와 같은 전문가 의견 조사는 현재 초·중등학교에 적용 중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간접적으로나마 공동 사고의 과정을 거쳐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시 개선 방향 수립에 참조할 수 있는 기초 조사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II. 연구 방법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1.성격과 목표’, ‘2.내용’, ‘3.교수·학습 방법’, ‘4.평가’로 이루어지는데, 본 조사에서는 1항과 2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설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 ‘내용 체계’, ‘구성 원리’, ‘총괄 수준’, ‘성취 기준’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¹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 학습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현실에 입각하여 학교 교육 또는 학교 교육 체제와 유사한 형태의 대안 교육의 장에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상정하였다. 그들은 주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나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또는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최근 일이 년 사이에 입국한 이’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중 최근 일이 년 사이에 입국한 이’ 등이 해당된다. 즉, 한국어 교육과정이 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적합성 여부를 근거로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본 델파이 조사는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지역, 성별, 연령, 학문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전문가 50명 중 전자 우편을 통해 1차 조사에 응한 34명의 대학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

1 교육과정 전반의 수준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시작점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급의 ‘총괄 수준’과 ‘성취 기준’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에 위치한 대학의 국어 교육 전공 교수와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 각 15명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소재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와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각 2명(관련 석사 학위 소지)이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델파이 조사 과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델파이 조사 과정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전공 교수(15) 및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15) • 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사(2) 및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전공 교수(15) 및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15) • 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사(2) 및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사(2)
방법	조사 도구 전달(전자 우편 발송) → 조사 실시 → 전자 우편 회송	조사 도구 전달(전자 우편 발송) → 조사 실시 → 전자 우편 회송
진행	조사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전자 우편 및 전화로 의사소통	조사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전자 우편 및 전화로 의사소통
시기	2014.11.12 ~ 2014.11.17	2014.12.8 ~ 2014.12.15
분석	2014.11.18 ~ 2014.12.7	2014.12.22 ~ 2015.3.22

1차 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 ‘내용 체계’, ‘구성 원리’, ‘총괄 수준’, ‘성취 기준’의 타당성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은 우선적으로 ‘2점(타당하지 않음) 이하’, ‘3점(보통)’, ‘4점(타당함) 이상’ 응답수의 합을 각각 정리하였다. 하나의 조사 항목에 대한 2점 이하의 응답수가 과반수(17명) 이상이거나 4점 이상 응답수의 두 배를 넘을 때 해당 의견을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4점 이상의 응답수가 과반수(17명) 이상이거나 2점 이하 응답수의 두 배를 넘을 때 해당 의견을 ‘타당함’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은 ‘경합’으로 판단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서 ‘타당하지 않음’으로 분류된 교육과정 항목에 대한 초점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조사 과정에서 2점 이하의

타당도 평정을 한 경우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차 설문 조사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2차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1차 조사에서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정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개선안의 타당도 평정을 하였다. 이 경우에도 ‘2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이유를 함께 제시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분석은 교육과정 개선안에 대한 타당도 평정 결과 ‘타당함’으로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타당도 평정 점수를 근거로 ‘4점(타당함) 이상’의 응답수가 과반수(17명) 이상이거나 ‘2점(타당하지 않음) 이하’ 응답수의 두 배를 넘을 때 해당 의견을 ‘타당함’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렴한 2차 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 항목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결과

1. ‘세부 목표’에 대한 검토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와 관련하여,² ‘다’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2.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 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 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 라.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휘 · 문법 · 발음’의 적용 범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과 제시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표 3>과 같이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표 3.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대한 개선안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언어 재료’라는 용어 사용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응답	1(2.9)	2(5.9)	13(38.2)	15(44.1)	3(8.8)
세부 내용의 세 가지 범주가 동등한 무게로 보이지 않는다.					
응답	0(0.0)	4(11.8)	17(50.0)	10(29.4)	3(8.8)
‘의사소통 기능’이 상위 범주인 ‘언어 기능’과 중복된다.					
응답	2(5.9)	4(11.8)	5(14.7)	20(58.8)	3(8.8)
‘주제 · 의사소통 기능’, ‘어휘 · 문법 · 발음’, ‘텍스트 유형’은 서로 무게가 달라, 적절한 구분이라 볼 수 없다.					
응답	1(3.0)	4(12.1)	11(33.3)	13(39.4)	4(12.1)
‘어휘 · 문법 · 발음’은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응답	0(0.0)	6(17.6)	11(32.4)	14(41.2)	3(8.8)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주제별핵심어휘’처럼 교과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화된 진술이 필요하다 (예: 교과별주제).					
응답	1(2.9)	6(17.6)	10(29.4)	14(41.2)	3(8.8)

3. ‘구성 원리’에 대한 검토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와 관련하여,⁵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구성 원리 설정, 단계별 총괄 수준에서 제시될 내용 범위, 내용 구성 범주의 하나로써 ‘과제와 기능’이 각각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대변하는 듯한 기술 방식,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5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숙달도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원리				
구성 범주	구성 요소	1급	→	6급

Language)의 숙달도 개념의 적용에 대한 재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표 4.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대한 개선안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구성 원리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응답	0(0.0)	6(18.2)	7(21.2)	18(54.5)	2(6.1)
단계별 총괄수준에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별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유형, 기능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답	0(0.0)	3(9.1)	14(42.4)	13(39.4)	3(9.1)
'과제와 기능' 범주의 급간 차이(1급-6급)가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차이처럼 보이게 기술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화제와 장면	화제: 친숙도 장면: 일상생활/교수·학습	친숙한 화제와 예측이 가능한 일상생활 장면	→	낮선 화제와 장면 돌발 상황 및 화제
과제와 기능	과제: 소통적 목적의 과제/ 학습목적의 과제 기능: 기본 의사소통 기능/ 교과영역에서의 학습 기능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 소통 기능(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대답하기 등)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 비교/대조하기, 기술하기, 설명하기, 논증하기 등)
언어 단위	단어와 어구, 문장, 문단, 담화, 텍스트	단어와 어구, 짧은 문장		담화와 텍스트
어휘	일상 생활 어휘/교수·학습 어휘(학습 기초 어휘, 교과 학습 어휘)	고빈도 어휘 일상어휘〉교과학습 어휘 구상적 아이디어와 개념		저빈도 어휘 일상어휘〈교과 학습 어휘 추상적 아이디어와 개념
언어 조정 능력	언어사용 상위인지능력 (초: 오류 인지 못함/ 중: 오류 인지하나, 오류 수정못함/ 고: 교사도움으로 오류 수정, 오류 인지 및 자가 수정 가능)	낮은 상위 인지 능력		높은 상위 인지 능력
문화 적응 능력	문화적응발달(구체적 문화적 산물 경험, 문화간 차이 최소화, 다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 인식 → 이해 → 타문화 인식 → 비교 → 상대화 → 수용		

응답	0(0.0)	5(15.2)	9(27.3)	14(42.4)	5(15.2)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의 숙달도 개념이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축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 사회의 중도 입학 자녀의 학업 수행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6(17.6)	12(35.3)	13(38.2)	3(8.8)

4. 초등학교 급 단계별 ‘총괄 수준’에 대한 검토

한국어 교육과정의 단계별 총괄 수준과 관련하여, 총괄 수준 기술의 방식, 단계별 총괄 수준 사이의 위계, 화용론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의 보완, 문어 구사 능력에 대한 보완,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용의 반영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표 5>와 같이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표 5. 초등학교 급 단계별 총괄 수준에 대한 개선안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총괄 수준에서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짚기보다 도달점 기준으로 기대하는 성취 수준을 과제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응답	0(0.0)	4(11.8)	11(32.4)	17(50.0)	2(5.9)
단계별 성취기준에 대한 총괄 수준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위계화되어야 한다.					
응답	0(0.0)	5(15.2)	10(30.3)	15(45.5)	3(9.1)
단계별 성취기준에 대한 총괄 수준의 문장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단계 내, 단계 간 긴밀하게 조직하여 제시해야 한다.					
응답	0(0.0)	2(5.9)	14(41.2)	13(38.2)	5(14.7)
어휘, 문장/문학적 의사소통의 사이에 화용론적 학습에 대한 국면을 첨가하여야 한다.					
응답	0(0.0)	3(8.8)	12(35.3)	15(44.1)	4(11.8)
주로 구어 능력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어,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	0(0.0)	1(2.9)	8(23.5)	16(47.1)	9(26.5)
‘문화 의식과 태도’ 범주의 ‘긍정적 자아 정체성, 공동체 의식’ 관련 내용이 총괄 성취기준 진술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응답	0(0.0)	2(5.9)	16(47.1)	13(38.2)	3(8.8)

5. 초등학교 급 단계별 ‘성취 기준’에 대한 검토

1) 1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과 [듣기-2]에 대해서는 진술 방식, [말하기-1]에 대해서는 진술의 구체성, [말하기-2]에 대해서는 [듣기] 영역과의 일관성, [말하기-4]에 대해서는 내용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듣기-1]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접하는 어휘에 소리를 연결 지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듣고 구별할 수 있다는 표현이 더욱 좋을 것 같다.					
응답	0(0.0)	4(12.1)	7(21.2)	19(57.6)	3(9.1)
어휘에 소리를 연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보다 명확하게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1(2.9)	6(17.6)	22(64.7)	5(14.7)
‘1단계-듣기-2’와의 차이점이 크지 않고 이보다 어휘가 아닌 소리 값에 연결한다는 게 더 바른 표현이 아닐까 한다.					
응답	0(0.0)	0(0.0)	18(52.9)	15(44.1)	1(2.9)
‘소리를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진술은 교육 목표 행위를 연상하기 어려우며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목표 행동을 측정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3(8.8)	11(32.4)	16(47.1)	4(11.8)

[듣기-2] 짧고 쉬운 낱말을 듣고 그 대상을 알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짧고 쉬운 낱말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응답	0(0.0)	6(17.6)	14(41.2)	10(29.4)	4(11.8)

[말하기-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대상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대상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야 한다.					
응답	0(0.0)	1(2.9)	11(32.4)	21(61.8)	1(2.9)

(말하기-2)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단계-듣기-3'에서는 '기본적인 인사말~'인데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를 앞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응답	2(5.9)	5(14.7)	12(35.3)	12(35.3)	3(8.8)

(말하기-4) 한두 단어로 지시나 명령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초등 단계에서 '지시'나 '명령'이라는 용어는 다소 부적절하다. '요청'이나 '요구' 등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1(2.9)	6(17.6)	9(26.5)	15(44.1)	3(8.8)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과 [읽기-2]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용어) 간의 충돌, [읽기-4]에 대해서는 성취 기준이 지시하는 대상(학습 내용)의 포괄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쓰기-1]에 대해서는 수준의 적합성, [쓰기-2]에 대해서는 진술 방식 및 지시하는 학습 내용의 명료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개선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읽기-1)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자음/모음'과 '받침'은 지시 수준이 다르다. 용어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4(11.8)	7(20.6)	13(38.2)	10(29.4)

(읽기-2)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쉬운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두 개의 능력이 혼재하는 기술문이다.					
응답	0(0.0)	7(20.6)	11(32.4)	13(38.2)	3(8.8)
'1단계-읽기-1'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통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0(0.0)	6(17.6)	8(23.5)	17(50.0)	3(8.8)

(읽기-4)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지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표지판'이라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취기준 기술에 부적합하다. '안내 문구' 등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6(17.6)	7(20.6)	18(52.9)	3(8.8)
표지판에 글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낱말을 읽고 이해하는가에 통합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유형)'으로 변별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응답	0(0.0)	8(23.5)	13(38.2)	11(32.4)	2(5.9)
굳이 '학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표지판'이라는 일반적인 진술 하에 구체적인 내용 또는 교재 구성에서 '일상생활' 속 표지판과 '학교생활' 관련 표지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응답	1(2.9)	4(11.8)	7(20.6)	17(50.0)	5(14.7)

(쓰기-1) 한글 자모를 보고 따라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필순에 맞게 따라 쓸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응답	1(2.9)	4(11.8)	8(23.5)	17(50.0)	4(11.8)

(쓰기-2) 그림이나 실물을 보고 그에 대응하는 낱자나 낱말을 쓴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낱자나 낱말'이라는 표현을 '낱자나 글자, 낱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응답	1(2.9)	5(14.7)	10(29.4)	16(47.1)	2(5.9)
성취기준은 진술 서술부 불일치: '쓴다'를 '쓸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할 듯하다.					
응답	0(0.0)	1(2.9)	3(8.8)	24(70.6)	6(17.6)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실물이나 관련 그림을 보고 그에 대응하는 낱자나 낱말을 쓴다.					
응답	1(2.9)	2(5.9)	11(32.4)	19(55.9)	1(2.9)

2) 2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과 [듣기-2]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적절성과 명료성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말하기-1]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구체성, [말하기-4]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적절성 및 명료성과 내용상의 수준 적합성과

관련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가-1)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나 관습어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관습어구’보다는 ‘관용어’, ‘관용’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응답	1(2.9)	4(11.8)	1(2.9)	21(61.8)	7(20.6)
‘관습어구’에는 모국어 화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된다.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응답	1(2.9)	3(8.8)	8(23.5)	18(52.9)	4(11.8)

(듣가-2)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사람과 사물’로 순서를 바꿔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	1(2.9)	3(8.8)	11(32.4)	12(35.3)	7(20.6)
‘관한’의 경우 지시하는 말인지 설명하는 말인지 모호하여 그 부분이 분명해지면 좋겠다.					
응답	1(3.0)	4(12.1)	12(36.4)	13(39.4)	3(9.1)

(말하가-1) 실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쉽고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실물이나 관련 그림을 보면서 쉽고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응답	0(0.0)	5(14.7)	14(41.2)	14(41.2)	1(2.9)

(말하가-4) 교과 시간에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천천히 되물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반드시 굳이 ‘천천히’를 넣어야 하는가?					
응답	0(0.0)	3(8.8)	12(35.3)	17(50.0)	2(5.9)
되묻는다고 할 필요 없이 ‘부분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응답	0(0.0)	2(5.9)	9(26.5)	18(52.9)	5(14.7)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메타적 인지 언어 능력이 필요한 고급 과제이다. 조금 더 초점화해서 기술해야 할 것 같다.					
응답	0(0.0)	4(11.8)	16(47.1)	10(29.4)	4(11.8)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되묻는다는 것이 내용에 기반한 질문인지 다시 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응답	0(0.0)	6(17.6)	7(20.6)	18(52.9)	3(8.8)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에 대해서는 수준 측면에서 1단계와 중복되고 2단계 내의 다른 성취 기준과도 수준 차이가 나는 점, [읽기-2]에 대해서는 3단계 내용과의 변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읽기-4], [쓰기-1], [쓰기-2]에 대해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문제, [쓰기-3]에 대해서는 용어 및 표현상의 문제와 학습 내용으로서의 타당성 문제, [쓰기-4]에 대해서는 수준 적합성, 쓰기 성취 기준으로서의 내용 타당성, 진술의 명료성과 관련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읽기-1]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단계와 겹치고 아래의 '2'와도 수준 차이가 난다. 위계화가 필요하다.					
응답	0(0.0)	5(14.7)	7(20.6)	19(55.9)	3(8.8)
'소리 내어 읽기'는 반드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더 높은 수준의 성취가 필요하다.					
응답	0(0.0)	6(17.6)	16(47.1)	8(23.5)	4(11.8)

[읽기-2]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와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단계-읽기-2'와 변별성이 없어 보임.					
응답	0(0.0)	3(8.8)	7(20.6)	19(55.9)	5(14.7)
'2단계-읽기-1'에 비해 갑자기 비약하는 능력 기술문이다.					
응답	0(0.0)	3(8.8)	11(32.4)	17(50.0)	3(8.8)

[읽기-4] 교과 시간에 자주 접하는 어휘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이미 이해’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응답	2(6.1)	2(6.1)	7(21.2)	19(57.6)	3(9.1)
낭독과 관련된 것은 읽기-1로 충분하다.					
응답	3(9.1)	3(9.1)	10(30.3)	14(42.4)	3(9.1)

[쓰기-1] 글씨를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응답	2(6.7)	2(6.7)	5(16.7)	16(53.3)	5(16.7)

[쓰기-2] 짧고 쉬운 낱말을 보고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응답	2(5.9)	3(8.8)	8(23.5)	14(41.2)	7(20.6)
2단계에서는 짧고 쉬운 낱말을 ‘듣고’ 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응답	2(5.9)	2(5.9)	10(29.4)	13(38.2)	7(20.6)
2단계에서는 짧고 쉬운 ‘문장’을 보고 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응답	2(5.9)	3(8.8)	8(23.5)	17(50.0)	4(11.8)

[쓰기-3] 온점, 물음표, 느낌표의 이름과 쓰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온점’은 마침표로 수정되어야 한다.					
응답	3(8.8)	4(11.8)	7(20.6)	13(38.2)	7(20.6)
‘이런 부호들을 문장 속에 사용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					
응답	0(0.0)	3(8.8)	7(20.6)	19(55.9)	5(14.7)
문장 부호의 쓰임은 모든 언어에서 유사하여 이 단계에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	0(0.0)	10(29.4)	8(23.5)	13(38.2)	3(8.8)

(쓰기-4) 교과 시간에 접하는 낱말과 그 뜻을 찾아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단계에서는 어려운 활동이다.					
응답	0(0.0)	2(5.9)	14(41.2)	16(47.1)	2(5.9)
쓰기의 성취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응답	0(0.0)	7(20.6)	10(29.4)	15(44.1)	2(5.9)
'낱말과 그 뜻을 정리하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인식되도록 기술을 변경해야 한다.					
응답	1(2.9)	2(5.9)	9(26.5)	18(52.9)	4(11.8)

3) 3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과 [듣기-2]에 대해서는 전후 단계와의 수준 연계, [듣기-4]에 대해서는 진술의 명료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말하기-1]에 대해서는 3단계 내용으로서의 수준 적합성, [말하기-2]에 대해서는 진술된 내용 간 충돌, [말하기-3]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의 수준 적합성 및 [듣기-3]과의 수준 균형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듣기-1)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주제와 짧은 대화를 듣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단계에서 제시된 쉽고 간단한 대화와 짧은 대화의 차이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4(11.8)	12(35.3)	16(47.1)	2(5.9)
2단계와 3단계 듣기 목표의 기술 사이에 갭이 크게 느껴진다. 구 단위 이해에서 바로 담화 단위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응답	0(0.0)	4(11.8)	11(32.4)	17(50.0)	2(5.9)

(듣기-2) 과거 시제로 된 문장을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과거 시제만을 다루고자 한다면, 1-2단계가 적절하다.					
응답	1(29.)	3(8.8)	13(38.2)	14(41.2)	3(8.8)

‘시제’를 고려하여 들을 수 있다 등으로 과거, 현재, 미래 등 한국어 시제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응답	2(5.9)	3(8.8)	9(26.5)	16(47.1)	4(11.8)

(듣가-4) 교과 내용과 관련해 쉽고 간단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술함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응답	0(0.0)	3(8.8)	16(47.1)	13(38.2)	2(5.9)
저학년의 교과일 경우는 이해에 쉬울 수 있으나 중학년 이상인 경우 교과에 사용된 어휘의 수준을 보면 3단계 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응답	0(0.0)	5(14.7)	16(47.1)	10(29.4)	3(8.8)
교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인지 교과 내용에 대한 메타언어적 설명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뜻이 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응답	0(0.0)	6(17.6)	9(26.5)	17(50.0)	2(5.9)
일상적인 한국어보다 학습 한국어가 어렵다고 전제하였으므로 같은 성취기준에서 둘 다 간단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	0(0.0)	5(14.7)	12(35.3)	16(47.1)	1(2.9)

(말하기-1) 하루 일과를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급에서 수행 가능한 목표이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2급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과거 시제를 3단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말하기 목표로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	0(0.0)	4(11.8)	12(35.3)	16(47.1)	2(5.9)

(말하기-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도움 요청하기와 제안하기는 서로 다른 목적이므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응답	0(0.0)	8(23.5)	9(26.5)	15(44.1)	2(5.9)

(말하기-3) 짧고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단계에 적합해 보인다.					
응답	0(0.0)	6(17.6)	11(32.4)	13(38.2)	4(11.8)

표현 영역이 이해 영역보다 어려우므로 듣기와 말하기 성취기준의 기술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응답	0(0.0)	1(3.0)	18(54.5)	12(36.4)	2(6.1)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전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난이도 충위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응답	0(0.0)	4(11.8)	10(29.4)	19(55.9)	1(2.9)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에 대해서는 2단계에 비해 3단계 성취 기준으로서 낮은 내용 수준, [읽기-2]에 대해서는 [읽기-1]과 마찬가지로의 낮은 내용 수준 및 같은 단계의 다른 성취 기준과의 균형, [읽기-4]에 대해서는 지시 내용의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쓰기-1]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성취 기준의 문제, [쓰기-3]에 대해서는 수준을 고려한 내용 한정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읽기-1] 쉽고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끊어 읽을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8(23.5)	8(23.5)	17(50.0)	1(2.9)

[읽기-2] 친숙한 주제의 짧고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2단계-읽기-2'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응답	0(0.0)	5(14.7)	5(14.7)	22(64.7)	2(5.9)
'3단계-읽기-3'이 서사문으로 한정되었으므로 '3단계-읽기-2'도 이에 대응하여 글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야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응답	0(0.0)	3(8.8)	11(32.4)	17(50.0)	3(8.8)

[읽기-4]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핵심 어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핵심 어휘가 과목별로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려운 성취기준이 될 수 있다.					
응답	0(0.0)	7(20.6)	12(35.3)	11(32.4)	4(11.8)

[쓰기-1] 낱말이나 쉽고 간단한 문장을 받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초급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응답	1(2.9)	6(17.6)	14(41.2)	10(29.4)	3(8.8)

[쓰기-3] 하루의 일과를 간단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글이라면 4단계 성취기준과 동일해진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설명하는 두세 문장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6(17.6)	9(26.5)	17(50.0)	2(5.9)

4) 4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에 대해서 이전 단계와 내용상의 중복, [듣기-4]에 대해서는 진술의 명료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말하기-1]에 대해서 진술의 구체성, [말하기-2]에 대해서 내용 한정 필요 및 [듣기-2]와의 변별성, [말하기-3]에 대해서 수준 적합성, 진술의 명료성, [읽기-2]와의 변별성, 그리고 [말하기-4]에 대해서는 같은 단계의 성취 기준([말하기-3])과의 내용상 위계와 관련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듣기-1] 짧고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읽기 영역에서 이미 3단계에서 다룬 내용이다. 영역별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8(23.5)	9(26.5)	15(44.1)	2(5.9)

[듣기-4] 교과 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핵심 어휘를 메모하며 들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듣는 행동이 목표 행동인지, 핵심 어휘를 찾는 것인지, 메모하는 것인지 초점이 불분명하다.					
응답	0(0.0)	9(26.5)	8(23.5)	15(44.1)	2(5.9)

[말하기-1]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상황에 맞는다.'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응답	1(2.9)	8(23.5)	8(23.5)	15(44.1)	2(5.9)

[말하기-2] 어떤 사실에 관해 이유를 묻고 답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행위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6(17.6)	9(26.5)	18(52.9)	1(2.9)
'4단계-듣기-2'와의 변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위에서는 타인들의 대화를 듣고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대방 발화를 직접 듣는 것인가?					
응답	0(0.0)	6(17.6)	9(26.5)	18(52.9)	1(2.9)

[말하기-3] 지나간 일에 대해 간단히 묻고 답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초급에서 가능한 수준이다.					
응답	1(3.0)	7(21.2)	12(36.4)	9(27.3)	4(12.1)
'지나간 일'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사건' 등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응답	1(2.9)	6(17.6)	11(32.4)	14(41.2)	2(5.9)
'4단계-읽기-2'와 실제 교육 내용 구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의문이다.					
응답	2(5.9)	7(20.6)	11(32.4)	14(41.2)	0(0.0)

[말하기-4] 교과 내용 중 주요 개념이 대상을 쉽고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개념 이해만으로도 어렵다.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설명을 찾는 정도가 적절하다.					
응답	0(0.0)	6(17.6)	13(38.2)	13(38.2)	2(5.9)
'4단계-말하기-3'과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4단계-말하기-3'이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응답	0(0.0)	4(11.8)	12(35.3)	15(44.1)	3(8.8)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 내용 전반의 타당성, [쓰기-2]에 대해서는 전 단계와의 연계

성, [쓰기-3]과 [쓰기-4]에 대해서는 수준 하위 조정의 필요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제시된 개선안이 타당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읽기-1]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낭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낭독은 4급 수준의 성취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응답	0(0.0)	9(26.5)	8(23.5)	13(38.2)	4(11.8)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낭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지적으로 이중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미 파악이든 낭독이든 초점을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응답	0(0.0)	8(23.5)	9(26.5)	13(38.2)	4(11.8)
'다른 사람에게 글의 의미를 잘 전달하면서 낭독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듯하다.					
응답	0(0.0)	5(15.2)	4(12.1)	22(66.7)	2(6.1)

[쓰기-1]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단계-쓰기-3'과 위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응답	1(2.9)	2(5.9)	4(11.8)	21(61.8)	6(17.6)
'앞에서 문장으로 쓴다.', '문단으로 쓴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다시 '메모' 느낌의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면 위계가 문제될 것 같다.					
응답	1(2.9)	3(8.8)	8(23.5)	17(50.0)	5(14.7)

[쓰기-3]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응답	1(2.9)	4(11.8)	12(35.3)	15(44.1)	2(5.9)

[쓰기-4] 교과에서 접하는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4단계의 성취기준으로 지나치게 어렵다.					
응답	0(0.0)	2(5.9)	12(35.3)	17(50.0)	3(8.8)

‘쉬운 개념을 짧게 요약하는 글’ 정도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응답	0(0.0)	3(8.8)	9(26.5)	19(55.9)	3(8.8)
‘교과서에서 접하는 주요 개념을 친숙한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3(9.1)	10(30.3)	19(57.6)	1(3.0)

5) 5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과 [듣기-3]에 대해서 4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 [듣기-3]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구체화하여 내용을 한정한 점, [듣기-4]에 대해서 전후 단계 대비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이 문제시되었다. [말하기-1]에 대해서 4단계 대비 낮은 수준 및 수준 구별의 준거가 되지 못하는 학습 내용 진술, [말하기-2]에 대해서 지시 내용의 광범위함, [말하기-4]에 대해서는 보다 정련된 재진술 요구 및 같은 단계의 다른 영역(듣기) 성취 기준과의 수준 균형과 관련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듣기-1) 간단한 대화를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예측 능력을 기술한다고는 하지만 간단한 대화는 5단계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응답	0(0.0)	4(11.8)	7(20.6)	19(55.9)	4(11.8)
5단계-듣기-4'와도 매우 수준차가 커 보인다.					
응답	0(0.0)	5(14.7)	7(20.6)	18(52.9)	4(11.8)
4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단계와 변별이 잘 되지 않는다.					
응답	0(0.0)	5(14.7)	6(17.6)	20(58.8)	3(8.8)

(듣기-3) 공공장소에서의 안내 방송을 듣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초·중급 수준에서도 가능한 내용이다.					
응답	3(8.8)	6(17.6)	10(29.4)	13(38.2)	2(5.9)

‘공공장소’라고 성취기준에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안내하는 말을 듣고’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응답	1(2.9)	8(23.5)	7(20.6)	15(44.1)	3(8.8)

(듣가-4) 교과 학습과 관련된 주제의 토의나 토론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성취기준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응답	1(2.9)	7(20.6)	8(23.5)	13(38.2)	5(14.7)
‘토의와 토론의 주제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이 필요하다.					
응답	0(0.0)	6(17.6)	11(32.4)	16(47.1)	1(2.9)

(말하기-1) 쉽고 간단한 말로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중급에 적당한 성취기준이다.					
응답	1(2.9)	5(14.7)	9(26.5)	18(52.9)	1(2.9)
‘비교와 대조’는 수준 구별의 준거가 되지 못한다. 국어교육이 아닌 한국어교육에서는 따라서 답화 자료의 수준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응답	1(2.9)	8(23.5)	9(26.5)	14(41.2)	2(5.9)

(말하기-2)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관용 표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응답	1(2.9)	7(20.6)	9(26.5)	15(44.1)	2(5.9)

(말하기-4) 교과 내용과 관련된 토의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교과 내용과 관련된 토의나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9(26.5)	7(20.6)	15(44.1)	3(8.8)
‘듣기’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높게 잡혀 있다. 간단한 대화를 듣고 예측하거나 상황 파악하는 정도의 듣기 수준인데, 토의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응답	0(0.0)	7(20.6)	12(35.3)	13(38.2)	2(5.9)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에 대해서 진술된 내용 간 충돌, 같은 단계의 다른 영역(말하기, 듣기) 내용과의 수준 균형, 표현이 지시하는 내용의 광범위함, [읽기-2]에 대해서는 내용 한정성의 필요성과 [읽기-1] 대비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쓰기-1]에 대해 표현 방식의 적절성과 장르 대해, [쓰기-2]에 대해 전후 단계 대비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 [쓰기-3]에 대해서는 같은 단계의 [쓰기-1] 및 [쓰기-2]와의 위계 조정과 5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 [쓰기-4]에 대해 진술과 그에 따른 지시 내용의 불명료함과 내용 타당성의 근거와 관련된 개선안이 전문가 집단의 평정에 의해 도출되었다.

[읽기-1]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짧고 간단함’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글의 구조 파악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					
응답	0(0.0)	5(14.7)	6(17.6)	20(58.8)	3(8.8)
말하기와 듣기에서는 ‘간단함’인데 읽기에서는 한 단계 더 수준을 낮춘 ‘짧고 간단함’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응답	0(0.0)	4(11.8)	8(23.5)	17(50.0)	5(14.7)
글의 구조는 매우 수준이 높은 과제이며 구조 역시 다양하다. ‘단순한 글의 구조’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응답	0(0.0)	8(23.5)	9(26.5)	16(47.1)	1(2.9)

[읽기-2]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글쓴이의 의도도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의 경우 특히 어렵다. 따라서 글의 종류를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					
응답	0(0.0)	6(17.6)	11(32.4)	13(38.2)	4(11.8)
의도 파악은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에 해당한다. 6단계가 적합하지 않을가 싶다. 1번 성취기준은 간단한 글의 구조 파악인데 이 성취기준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응답	0(0.0)	6(17.6)	12(35.3)	13(38.2)	3(8.8)

(읽가-3)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4급 이하에 적절한 내용이다.					
응답	2(5.9)	4(11.8)	10(29.4)	13(38.2)	5(14.7)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밑줄을 긋는 행동이 중요하지는 않다.					
응답	0(0.0)	6(17.6)	7(20.6)	16(47.1)	5(14.7)

(쓰가-1)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마음을 전하는'과 같은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편지가 좋을 듯하다.					
응답	0(0.0)	5(14.7)	5(14.7)	21(61.8)	3(8.8)
학습 한국어와 연계시킨다면 안내문이나 여행지, 박물관 등에서 알게 된 것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정도의 목표가 더 타당하다.					
응답	0(0.0)	7(20.6)	13(38.2)	11(32.4)	3(8.8)

(쓰가-2)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글로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감상을 글로 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성취기준이다.					
응답	0(0.0)	8(23.5)	10(29.4)	13(38.2)	3(8.8)

(쓰가-3)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단계-쓰가-1,2'는 위계나 층위가 어색하다. 어떤 점에서는 3이 가능해야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응답	0(0.0)	3(8.8)	15(44.1)	14(41.2)	2(5.9)
논리적 구조의 글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 문단 수준은 5단계에 적절하지 않다. 6단계를 고려한다면 5단계에서는 한 문단보다 긴 글을 이미 쓸 수 있어야 한다.					
응답	0(0.0)	5(14.7)	6(17.6)	20(58.8)	3(8.8)

(쓰가-4)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비교 대조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성취기준의 의미가 불명료하다.					
응답	1(2.9)	6(17.6)	12(35.3)	12(35.3)	3(8.8)

비교/대조만을 성취기준에 넣은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응답	0(0.0)	7(20.6)	9(26.5)	15(44.1)	3(8.8)
장르와 문종과 언어 단위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응답	1(2.9)	5(14.7)	14(41.2)	11(32.4)	3(8.8)
내용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응답	1(2.9)	4(11.8)	11(32.4)	15(44.1)	3(8.8)
'교과 학습 내용을 비교, 대조 등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한 문단 수준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5(14.7)	12(35.3)	15(44.1)	2(5.9)

6) 6단계

(1)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듣기-1]에 대해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 확보, [듣기-2]에 대해 5단계와의 지나친 편차, [듣기-3]과 [듣기-4]에 대해 6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말하기-2]에 대해 5단계와의 수준 연계, [말하기-3]에 대해서 보다 정련된 방식의 재진술 필요 및 내용상 한 단계가 아닌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학습 요소 성격, [말하기-4]에 대해서는 같은 단계의 [말하기-1], [말하기-2], [말하기-3]과의 층위 문제 및 5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듣기-1]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접하는 어휘에 소리를 연결 지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구성 원리 상 6단계의 전영역에 걸쳐 상위인지적으로 문법적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것인데 말하기 영역에서만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어색하다.					
응답	0(0.0)	6(17.6)	7(20.6)	16(47.1)	5(14.7)
말하기 성취기준 기술에서 '문법적 오류'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자신의 말하기 행위(수행)를 점검하고 적절하게 고쳐 말할 수 있다.' 정도로 변경할 것을 재고해야 한다.					
응답	0(0.0)	4(11.8)	10(29.4)	18(52.9)	2(5.9)

[듣가-2] 공식적 상황에서 발표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단계와 편차가 커 보인다.					
응답	1(2.9)	5(14.7)	16(47.1)	9(26.5)	3(8.8)

[듣가-3] 친숙한 주제의 발표를 듣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단계 이하에 적절한 성취기준이다.					
응답	0(0.0)	6(17.6)	11(32.4)	15(44.1)	2(5.9)
위의 2번과 위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응답	0(0.0)	2(5.9)	9(26.5)	21(61.8)	2(5.9)

[듣가-4] 교과 학습 내용을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단계-듣가-4'와 상호 교체가 나올 듯하다.					
응답	0(0.0)	5(14.7)	13(38.2)	13(38.2)	3(8.8)
'교과 학습 내용을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지식 체계에 통합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이 필요하다.					
응답	0(0.0)	5(14.7)	14(41.2)	14(41.2)	1(2.9)

[말하가-2] 소집단 대화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5단계 말하기의 '토의나 토론'과 소집단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다. 오히려 5단계의 토의나 토론이 6단계에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응답	0(0.0)	7(20.6)	7(20.6)	15(44.1)	5(14.7)

[말하가-3] 대화 내용에 알맞은 억양, 어조, 속도, 강세, 몸짓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몸짓 등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매우 어색하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응답	0(0.0)	3(8.8)	9(26.5)	19(55.9)	3(8.8)
6단계가 아닌 전단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목표다.					
응답	0(0.0)	4(11.8)	8(23.5)	19(55.9)	3(8.8)

[말하기-4]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6단계-말하기-1,2,3'과 층위가 완전히 다르다.					
응답	0(0.0)	5(15.2)	12(36.4)	13(39.4)	3(9.1)
5단계와 6단계가 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은, 조사 내용 발표가 의견 발표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재고를 요한다.					
응답	1(2.9)	5(14.7)	12(35.3)	13(38.2)	3(8.8)

(2)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읽기-1]에 대해 내용상 한 단계가 아닌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학습 요소 성격, [읽기-2]에 대해 진술의 명료성, [읽기-4]에 대해 읽기 영역 성취 기준으로서의 내용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쓰기-1]에 대해서는 해당 성취 기준의 내용 한정 필요, [쓰기-2]에 대해 내용의 성격과 수준 측면 모두에서의 부적합, [쓰기-3]에 대해 같은 단계의 [쓰기-1] 대비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과 진술 보완의 필요, [쓰기-4]에 대해서는 4단계 [쓰기-4]와의 차별성 여부, 6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에 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읽기-1] 맥락적 단서를 활용하여 낯선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이것은 어떤 수준의 글에서나 학습자들이 저절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보다는 '대상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글에서' 등과 같이 텍스트 수준이나 성격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응답	0(0.0)	5(14.7)	12(35.3)	16(47.1)	1(2.9)

[읽기-2] 이야기를 읽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이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를 다루는 것인지 문화의 범주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응답	0(0.0)	10(29.4)	7(20.6)	14(41.2)	3(8.8)

[읽기-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쓰기 활동이 아닌가? 읽은 글에서 정보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응답	0(0.0)	9(26.5)	7(20.6)	15(44.1)	3(8.8)
통상적으로는 '읽기 전 활동'도 '읽기'에 포함시키지만 이 연구의 여러 성취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읽기'의 성취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응답	0(0.0)	5(14.7)	10(29.4)	13(38.2)	6(17.6)

[쓰기-1] 시작, 중간, 끝의 구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한 편의 완결된 글'이라는 표현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					
응답	0(0.0)	3(8.8)	11(32.4)	18(52.9)	2(5.9)
글의 수준이나 종류가 언급되어야 한다. 좀 단조로워 보일지언정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가르칠지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응답	0(0.0)	3(8.8)	10(29.4)	19(55.9)	2(5.9)

[쓰기-2]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어떤 글을 쓰는지에 따라 초, 중급에도 배치가 가능하다.					
응답	0(0.0)	5(14.7)	7(20.6)	16(47.1)	6(17.6)
이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무관한 것으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에 들어올 성질의 성취기준이 아니다.					
응답	0(0.0)	7(20.6)	13(38.2)	8(23.5)	6(17.6)

[쓰기-3] 쟁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고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6단계-쓰기-1,4'에 비해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응답	0(0.0)	3(8.8)	12(35.3)	16(47.1)	3(8.8)
여기서만 '읽고 쓰기'를 하는 점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이유를 알 수 없다.					
응답	0(0.0)	7(21.2)	12(36.4)	12(36.4)	2(6.1)
'쟁점이 드러나는 글을 읽고 쟁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응답	0(0.0)	3(8.8)	10(29.4)	20(58.8)	1(2.9)
주장하는 글쓰기 내에서도 쉽고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므로 수준이 드러나게 진술을 보완해야 한다.					
응답	0(0.0)	4(12.1)	12(36.4)	13(39.4)	4(12.1)

[쓰기-4] 교과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구분	전혀 타당치 않음	타당치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4단계-쓰기-4’와 유사하므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응답	0(0.0)	6(17.6)	10(29.4)	15(44.1)	3(8.8)
5단계보다 더 쉬울 수 있다. ‘교과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응답	1(2.9)	7(20.6)	9(26.5)	13(38.2)	4(11.8)

IV. 논의 및 결론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 ‘내용 체계’, ‘구성 원리’, ‘총괄 수준’, ‘성취 기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세부 목표 간 수준과 위계가 좀 더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예컨대 ‘다’ 항의 ‘소통 능력’과 ‘가’ 항의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중복되어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어 교육과정이 외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용의 체계화라는 차원에서 그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둘째,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세 가지 상위 범주(‘언어 기능’, ‘언어 재료’, ‘문화 의식과 태도’) 간 위계가 맞지 않음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상위 범주(‘언어 기능’)와 다른 상위 범주(‘언어 재료’)의 하위 범주(‘의사소통 기능’)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도 언급되었다. 하나의 상위 범주 안에서도 세 가지 하위 범주(‘주제 · 의사소통 기능’, ‘어휘 · 문법 · 기능’, ‘텍스트 유형’) 간 위계의 차이도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기술 방식의 차원에서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주제별 핵심 어휘’

와 같은 하위 범주 설정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구성 원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⁶ 같은 맥락에서 ‘과제와 기능’ 범주의 급간(1급~6급) 사이의 차별성이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차이로 보이게끔 기술한 방식이 수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는 ‘숙달도’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한국 사회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어 학습 상황에 비추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한국어 교육과정 단계별 ‘총괄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진술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보다 도달점을 기준으로 과제 중심의 서술 방식을 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현재와 같이 총괄 수준의 문장들이 평면적으로 나열된 방식을 지양하고 단계 내 및 단계 간 긴밀한 조직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의 의견으로 교육 내용 설계 시 화용론적 관점의 도입, 문어 능력 보완, ‘긍정적 자아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관련 내용의 반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단계별 ‘성취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크게 ‘수준 적합성’, ‘진술의 구체화 정도’, ‘용어 사용의 적절성’, ‘진술된 내용 간의 관계’, ‘진술 방식의 재고’, ‘새로운 대안 제시’, ‘위계 및 연계’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수준 적합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특정 성취 기준의 수준이 해당 단계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진술의 구체화 정도’에 대해서는 진술된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하거나 협소해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관해 전문가들은 성취 기준 진술에 쓰인 다양한 어문학 교육 관련 전문 용어가 해당 맥락에 적절하

6 이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이다(곽재용, 2012; 양영희, 2013 참조).

지 않은 사례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진술된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술문 안에 포함된 지시 대상(내용) 사이에 서로 간섭을 일으키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음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진술 방식의 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성취 기준이 담고 있는 내용을 거의 유지하는 선에서 진술 방식만을 좀 더 정련하여 재진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대안 제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취 기준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상당 부분 달라진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 및 연계’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성취 기준이 다른 단계의 성취 기준 또는 같은 단계의 다른 영역의 성취 기준과 비교하여 내용과 수준면에서 위계 또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성취 기준으로 지정된 항목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교 급 단계별 성취 기준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 결과(횟수)

○:1번, ◎:2번, ⊙:3번

단계 영역	검토 내용	수준		구체화		표현 불명료	용어 부적절	간섭 충돌	재진술 제안	새로운 대안	위계 연계	총계
		높음	낮음	추상적	구체적							
1	듣1		○			◎			○			4
	듣2					○						1
	말1								○			1
	말2										○	1
	말4						○					1
	읽1						○					1
	읽2							○				1
	읽4				◎							3
	쓰1								○			1
	쓰2						○		◎			3

2	듣1						○					1
	듣2					○			○			2
	말1								○			1
	말4				○	○			◎			4
	읽1		○									1
	읽2	○										1
	읽4									○		1
	쓰1		○									1
	쓰2		◎									3
	쓰3						○		○			2
	쓰4	○							○	○		3
3	듣1	○				○						2
	듣2		○							○		2
	듣4					◎		○				4
	말1		○									1
	말2							○				1
	말3		○							○	○	3
	읽1		○									1
	읽2		○							○		2
	읽4					○						1
	쓰1		○									1
	쓰3	○										1
4	듣1		○									1
	듣4					○						1
	말1			○								1
	말2			○							○	2
	말3		○			○					○	3
	말4	○									○	2
	읽1							○		○	○	3
	쓰1										◎	2
	쓰3								○			1
	쓰4	◎							○			3

5	듣1		◎							○	3
	듣3		○		○						2
	듣4	○						○			2
	말1		○						○		2
	말2			○							1
	말4							○		○	2
	읽1						○				1
	읽2	○		○							2
	읽3		○				○				2
	쓰1							○	○		2
	쓰2	○									1
	쓰3		○							○	2
	쓰4				○		◎	○			5
6	듣1							○		○	2
	듣2	○									1
	듣3		○							○	2
	듣4							○		○	2
	말2									○	1
	말3							○		○	2
	말4									◎	2
	읽1			○							1
	읽2				○						1
	읽4								○		1
	쓰1			○				○			2
	쓰2				○				○		2
	쓰3	○			○			○		○	4
	쓰4							○		○	2
총계		13	21	6	5	16	5	9	24	10	20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단계별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볼 때,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 진술의 불명

료함, 보다 정련된 형태로의 재진술 요구, 다른 단계 또는 영역 성취 기준과의 위계나 연계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전문가 집단이 보다 빈번히 언급한 성취 기준은 1단계 [듣기-1], [읽기-4], [쓰기-2], 2단계 [말하기-4], [쓰기-2], [쓰기-4], 3단계 [듣기-4], [말하기-3], 4단계 [말하기-3], [읽기-1], [쓰기-4], 5단계 [듣기-1], [쓰기-4], 6단계 [쓰기-3] 성취 기준으로 나타났다. 단계상으로는 4단계, 영역상으로는 쓰기 성취 기준에서 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 결과는 현재 초·중등학교에 적용 중인 한국어 교육 과정이 좀 더 개선될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특정 내용의 편중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지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 시 본격적인 개정 작업 전에 필요한 논의 사항을 점검하는 기초 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한국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만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보다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5. 4. 30. 투고되었으며, 2015. 5. 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27].

[논저]

곽재용(2012), 「‘한국어 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국제언어문학』, 제26호, 1-25,
국제언어문학회.

구영산 · 이화진 · 이해원 · 장의선(2014),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보고 PRI 201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란(2014),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9호 제3호,
60-92, 국어교육학회.

양영희(2013),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199-2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안

구영산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에 고시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필요한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세부 목표’, ‘내용 체계’, ‘구성 원리’, 단계별 ‘총괄 수준’, 단계별 ‘성취 기준’에 대한 개선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교육과정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렴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급의 단계별 성취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 진술의 불명료함, 보다 정련된 형태로의 재진술 필요 등이 가장 많은 성취 기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는 단계상으로 4단계, 영역상으로 쓰기 영역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수준 적합성, 성취 기준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Level Relevance of the Nationa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Curriculum

Goo Youngsan

The nationa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curriculum was announced in 201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concerning how to revise the curriculum.

A delphi survey was administered to 34 subjects. 15 were university professors and 2 were elementary schools teachers specializing in Korean education. 15 were university professors and 2 we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pecializing in Korean-as-a-second-language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once in November and once in December 2014. On a scale from 1 to 5, subjects indicated the validity of “goals”, “contents”, “organization principles”, level relevance of higher-leveled achievement standard statements (level 1-6) and lower-leveled achievement standard statements (level 1-6) of the national KSL curriculum.

Subjects indicated various ways to revise sections of the curriculum. The most common criticisms of the sections were that they were too easy, they contained unclear statements, or required other stylistic revisions.

KEYWORDS education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e nationa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curriculum, level relevance, achievement standard statement